

1 개요

구좌읍 한동리의 옛 이름인 괴이리(槐伊里)와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괴이리(槐伊里)는 구좌읍 한동리(漢東里)의 옛 이름이다. 괴이리라 부르던 때, 외국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다, 풍파를 만나 배가 파선되어 어부들만 헤엄쳐 나왔다. 이집저집의 외양간이나 처마 밑에 몸을 숨기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구해주지 않아 모두 얼어 죽고 말았다.

그 뒤 이 마을에는 간혹 바다에서 불씨가 날아와 여러 채를 태우곤 했다. 이를 도체빚 불이니, 조화불(造化之火)이니 했다.

마을 회의를 열었더니, 얼어 죽은 어부의 원혼 때문이라고도 하고, 마을 이름의 괴(槐)가 붙어서, 집집마다의 재목(木)에 악귀(鬼)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고치자고 했다.

3년을 두고 논의한 끝에 한라산 동쪽 마을이라 해서 마을 이름을 한동리(漢東里)로 바꿨다. 100여 년 전에 이렇게 고친 뒤에는 ‘조화불’이 사라졌지만, 범천총과 같은 인물은 나지 않는다고 한다.

3 특징

4 핵심어

한동리, 괴이리(槐伊里), 도체빚불, 외국 어부, 조화불, 조화지화(造化之火), 범천총, 재목, 악귀

5 원전 서지사항

괴이리(槐伊里)(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도체비불과 한동리명(漢東里名)(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